

# SVB 파산 여파... 스위스 CS주가 폭락, 국내 은행株 '긴장'

(크레디트스위스)

한국거래소, 국내 은행주 약세  
하나금융 3.21%, 신한 2.81% ↓  
CS주가 급락, 금융주에 영향 미쳐

英 바클레이스, 獨 코메르츠뱅크 등  
유럽 은행주들도 7~12% 급락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크레디트스위스 위기로 금융 혼란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16일 아시아 은행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뉴시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더해 스위스계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주가 폭락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주도 휘청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은행주의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 및 조달 구조 측면에서 국내 은행들의 안정성이 높아 SVB, CS 사태 등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VB 파산 사태 이후 국내 은행주들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전일 대비 3.21% 하락한 4만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한지주(-2.82%), KB금융(-1.94%), BNK금융지주(-1.59%), 우리금융지주(-1.35%) 등도 하락 마감했다. 이외에도 지방은행인 JB금융지주(-2.85%)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0.82%)도 떨어졌다.

간밤 CS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SNB)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CS 주가가 급락한 것이 국내 금융주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전날 주요국 주식시장에서 은행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등 은행주 전반에 하락세가 확산됐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CS의 주가는 14%가량 하락했으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21.37%), 팩웨스트 방코프(-12.37%), JP모건체이스(-4.72%), 모건 스탠리(-5.09%), 골드만삭스(-3.09%) 등도 크게 떨어졌다.

영국 바클레이스, 독일 코메르츠뱅크, 프랑스 BNP파리바와 소시에테 제네랄 등 다른 유럽 은행주도 7~12% 급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SVB 사태 여진이 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SVB보다 상징성이 큰 유럽의 대형은행 위기가 불거졌다는 점은 은행권의 유동성 불안 우려를 한층 더 자극했다"고 말했다.

CS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SVB와 CS 사태가 국내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VB, CS와 달리 국내 은행들의 경우 자산 및 조달 구조 측면

에서 안전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VB 사태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일부 은행의 자산부채관리(ALM) 전략의 실패"라며 "글로벌 및 국내 주요 대형 은행의 경우 자산 다변화가 양호하고 예금도 안정적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주의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SVB 사태 등에 따른 리스크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점은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극단적인 글로벌 은행들의 연속적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국내 은행주의 경우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조정은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증시 부진에도 상장사 주주 4.1% 늘었다

예탁결제원, 작년 12월 1441만명  
1인당 평균 5.85종목 소유, 1.8% ↓

작년 증시 부진에도 상장사 주주가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 주주는 14% 늘어나 600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의 중복 소유자를 제외한 실제 주식 소유자가 144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소유종목은 5.85종목으로 전년보다 1.8% 줄었고, 1인당 평균 소유주식 수는 7688주로 0.8% 감소했다.

소유자 구성을 보면 개인소유자가 1424만명(98.8%)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소유자 4만3000명(0.3%), 외국인소유자 3만3000명(법인)(0.2%)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식 수도 개인소유자 561억주(50.7%), 법인소유자 407억주(36.7%), 외국인소유자 133억주(12.0%) 순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법인소유자의 소유주식 수가 가장 많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소유자의 소유주식 수가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소유주수가 가장 많은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성전자로 638만755명이었고, 카카오(206만6529명), 현대자동차(120만9826명) 순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29만3천904명), 셀트리온헬스케어(27만7천691명), 에코프로비엠(22만5천308명) 순으로 주주가 많았다.

외국인 소유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는 33개사로 전년 대비 1개사가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생명보험(82.0%), S-OIL(77.3%), 락앤락(77.1%) 순으로 외국인 소유 비율이 높았다.

개인투자자는 40대가 327만명(22.9%)으로 가장 많았고, 소유주식 수는 50대가 192억주(3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743만명(52.2%), 여성이 681만명(47.8%)으로 비슷했으나 소유주식 수는 남성이 399억주(71.1%)로 여성(162억주·28.9%)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743만명(52.2%), 여성이 681만명(47.8%)으로 비슷했으나 소유주식 수는 남성이 399억주(71.1%)로 여성(162억주·28.9%)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법인 소유자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379만명(26.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5만명(24.6%), 부산 88만명(6.1%) 순이었다.

거주지·성별·연령대별 소유자 분포로 보면 경기도 수원시 거주 40대 남자가 4만54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용인시 거주 40대 여자(4만3800명), 경기도 수원시 거주 40대 여자(4만3800명) 순으로 집계됐다.

소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거주지·성별·연령대는 서울 강남구 거주 50대 남자(11억8000만주)였다.

/원관희 기자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시장·회사별 소유자수 상위 5사) (단위: 명/예탁결제원)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법인명	소유자수	법인명	소유자수
1위	삼성전자	6,380,755	카카오게임즈	293,904
2위	카카오	2,066,529	셀트리온헬스케어	277,691
3위	현대자동차	1,209,826	에코프로비엠	225,308
4위	네이버	1,051,660	하림	202,014
5위	SK하이닉스	1,007,067	엘앤에프	173,919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경제법학회·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두나무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ICON 2023'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나무

## “가상자산 점유율 산출시 해외시장 포함해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ICON 2023'

“가상자산 종류 2만여종 달하고 특성상 새로운 자산 계속 등장 국내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해외 포함 시장 획정이 타당”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획정 시 지리적 시장을 국내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 새로운 자산이 등장하는 특성상 해외 시장을 염두하고서 점유율을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경제법학회·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두나무가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ICON 2023'에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산업 내에서 최근까지도 선두업체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빚쟁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점유율의 89% 차지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업비트가 84%까지 차지하

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거래 시장 점유율 판단시 국내로만 한정짓기 보다는 해외시장을 분리해서 바라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종류는 2만여종에 이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성상 새로운 자산이 계속 등장할 수 있다”라며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로만 한정할 경우 점유율이 높은 국내 거래소라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와 비교하면 순위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국내 1위 사업자인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은 6~10위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웹·모바일 방식으로 접근이 용이한 가상자산 거래 산업 특성상 국내 투자자들도 이미 상당 수가 해외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국내의 거래소 월간 평균 방문수(2021 7월~2022년 6월

기준)만 보더라도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바이비트가 각각 8.3%, 6.8%를 차지하면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나아가 웹으로만 한정할 경우 바이비트가 월평균 방문자가 전체 22.8%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 각 거래소의 락인효과가 낮다는 점 등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낮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날 DCON 행사에서 시장 확정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IEO), 토큰증권발행(STO) 등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목받은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IEO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IEO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권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IEO에 대한 책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있기에 디지털자산 발행사(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IEO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